

육우농가의 소리 ①

국민의  
생명산업으로  
남아야 할  
소 산업

박 충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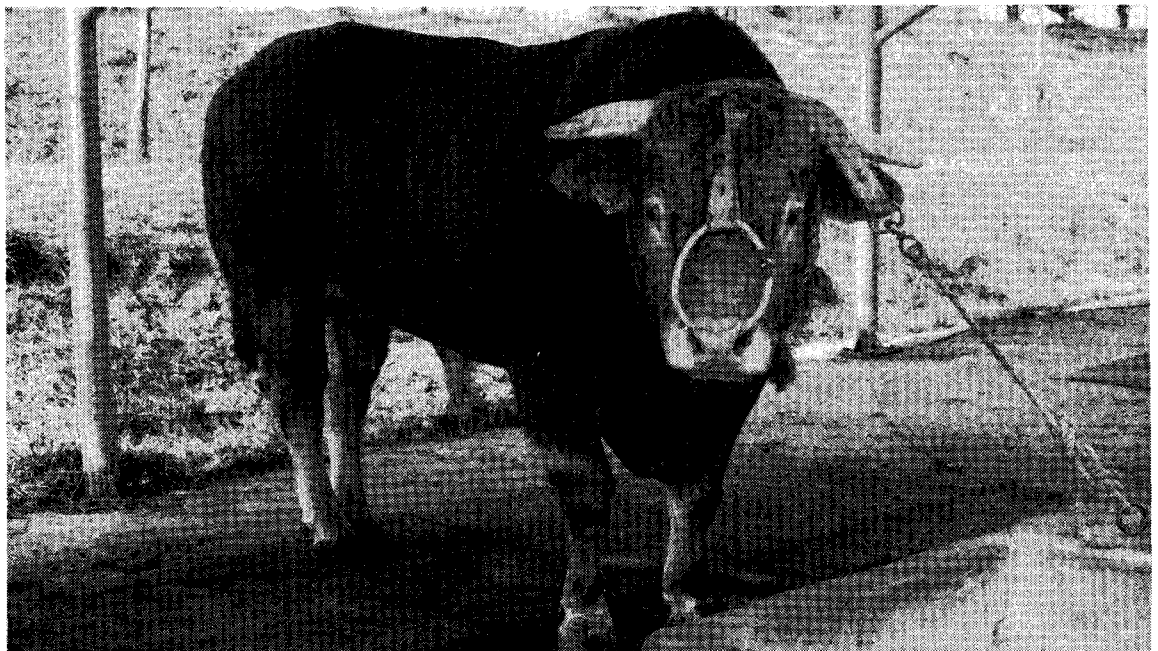
경남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한우** 사육은 농촌의 기간산업으로서 모든 농민의 희노애락을 같이 해온 가축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 왔음을 아무도 부인 못할 현실입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와서 쇠고기 수입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우사육이 존폐의 기로에 서서 방황하고 있음은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가 우리생활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며 우리는 왜 이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원시 농경사회에서는 그 곳곳한 힘을 빌어 많은 노동력을 제공받았고 매년 생산되는 송아지는 가난한 농촌 가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며 재산 증식 수단으로서 가치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죽어서는 많은 영양을 고루 제공하는 영양공급원으로 농민의 건강과 힘을 주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역할



담당에 손색이 없는 재산 제1호로 말함에도 아무도 부인 못할 위치를 고수해 왔고 고도의 산업발달로 모두가 분업내지는 전문화, 기계화로 치달는 요즈음은 그나마 젊은 청년들을 농촌에 머무르게 할수 있는 수단으로 농촌의 활기를 지키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예로 농촌 젊은이들의 대명사처럼 되어있는 영농후계자들의 80% 이상이 이 한우 비육사업을 희망하고 실제 비육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다음은 한우의 우수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화우가 세계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화우고기의 독특한 풍미가 세계인의 미각에 만족감을 줄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사육되고 있는 화우는 두가지 종류로 구분된다는데 태평양쪽에서 사육되고 있는 화우는 검은색을 띤 것이고 대한해협 쪽의 화우는 대개 붉은색을 띠고 있는 화우라고 들었습니다. 이 두종류의 화우가 동일 중량의 소를 도체했을때 지육률이나 정육률이 붉은색 화우가 항상 앞서고 풍미 또한 더 좋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봅니다.

붉은색 화우가 검은색 화우에 비해 좋은 형질을 가진 이유를 다방면으로 연구를 한 결과 붉은색 화우가 한우의 형질을 유전 받았기 때문에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의 뿌리가 농촌에서 이루어졌고 그 농촌경제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해온 한우는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뿐만 아니라 이런 우수한 형질을 가진 한우는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가진 우리 모두의 재산으로서 지키고 가꾸어야 할 필요성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외제 선호사상이 팽배해 있으며 인간의 가치판단 기준마저 외제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웃지 못할 현실사회에서도 쇠

고기만은 국산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속지만 않는다면 국민들의 선택이 분명히 한우쪽에 있음을 보아도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모든 농산물이 그러하듯이 쇠고기 역시 생명체로서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부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된 음식은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음식의 신선도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공업분야의 고도화된 발달로 냉동시설이 보편화되었고 아무리 먼곳에서도 냉동상태로 수송이 가능하다지만 신선도 유지는 한시적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요즈음 농촌에서도 냉장고의 보급율이 높아져 각 가정마다 보유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저장고에 불과하지 장구한 시간동안 맛과 영양을 저장하는 기능은 분명히 없다고보며 신선도 면에서도 단연 한우고기는 수입쇠고기와 비교우위에 있음은 아무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열거한 모든 유리한 조건과 보존의 필요성을 갖추었으면서도 지속적인 한우 비육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정책적으로 한우의 개량 및 보존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수입개방 압력에 농민들의 신뢰감을 얻어낼 확고한 대안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농수산부 당국자 및 일부 경제학자들이 나름대로 수입개방 압력에 최선을 다해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는 농민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지만 영향력의 한계와 능동적인 움직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입니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수출산업은 저곡가 정책으로 값싼 노동력 제공이란 명분으로 농민의 희생을 강요당했으며 이제는 그 생산품 판매를 위해서 2중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 비교우위론.

우리와 같은 시골 농군으로서 이해 하기가 힘든 말이지만 제일 먼저 이것을 제창한 영국의 아담 스미스도 이론상으론 가장 좋은 이상향이지만 현실적으로 몇가지 사항을 선결하지 않고는 불가능 이론이라고 판단했다 합니다.

즉, 공정거래가 형성되어 독점가격으로 팔리는 물건이 없고 자본과 노동력이 전부 가동되고 원료와 제품의 이동에 드는 비용이 없을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농업 생산 분야이지만 비교우위론과 무관하게 투자하고 발전 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앞에 열거한 사항에 충족될만한 것은 한가지도 없는 것을 보면 비교 우위론에 의한 축산 분야의 수입개방은 자멸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1965년도에 "BOP 졸업국"으로서 26년동안 화우의 보호를 위해 쇠고기 수입개방은 보류해 왔으며 그동안 화우개량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세계인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쇠고기로 개량한 사실은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좋은 사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늦게나마 한우 계량단지를 전국 8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리고 한우의 우수한 형질 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내용을 볼때 과연 짧은 기간동안 일본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지는 많은 의구심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둘째로 유통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農心은 天心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상인과 정육점의 농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물먹인 소가 유통되는가 하면 도매시장에서는 젓소 폐우가 정육점에서는 버섯이 한우고기로 둔갑해서 소비자의 미각을 혼동시키는가 하면 급기야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많은 차익을 얻은 식육업자들은 육우농가의 반(半)도 안되는 자본을 운용하면서도 고급 승용차에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태는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해야할 일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셋째로 사료공장의 횡포를 더이상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88년도 일반제조업의 경상이익이 2%인데 비해 사료공장의 경상이익이 8%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한민국 농민은 정책의 혜택과 제도의 보호속에 생활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 뿐입니까.

대한민국 전체인구 4천여만명 중에 1/5인 800만명이 농민이라면 농민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과 제도의 그늘속으로 이제는 포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취약하고 지식 수준이 낮아서라면 조직 활성화의 길을 열어주고 끊임없는 교육으로 지적인 수준을 얼마든지 높일수 있습니다.

더이상 고도의 경제성장 그늘에서 우리 농민들을 밀어낸다면 타는 목마름을 참으면서 퇴약 별에서 죽어 갈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이의 지극한 희생 정신으로 성장한 자식이 아버지를 저버릴수 없듯이 농민의 희생이 고귀한 것이었다면 벼랑끝에선 농민의 입지를 모든 국민들은 저버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네째로 농민조직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지적인 수준이 비슷하고 처음부터 조직생활에 길들여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제몫 찾기에 노력한 결과 열악한 노동환경은 많이 개선 되었고 사주의 일방적인 이익 분배 방식도 개선되듯이 이젠

우리 농민들도 이익집단을 구성해서 농민 스스로 농민권익을 지킬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며 이것은 행정부의 적대세력이 아닌 동조세력으로 정착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육우협회는 어떠한 형태로 우리 앞에 닥아 오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마치 괴물같이 보이지만 미국내의 육우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미국의 정부차원도 아닌 자생단체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호통을 치고 있는데도 우리정부는 확고한 대안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고 찢쩍대면서도 대응세력을 키우는데는 왜 그리도 인색들 하십니까,

우리 한국 낙농육우협회가 제대로 클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보십시오. 정부가 못하는 이야기를 협회에서 팡팡해줄수 있을 것입니다.

이땅은 분명 대한민국 땅이고 이땅에 사는 모든 배달겨레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땅의 주인답게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는 정부의 의연한 모습을 보일 때 농민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은 정부의 의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따를 것입니다.

생존권 투쟁은 가열찬 것이며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무리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육우인들의 이 생존권을 미국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노리고 있고 그 괴물의 위력에 눌려 조금씩 조금씩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끝닿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종점에서는 정면 돌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아무리 순박하고 싸움을 싫어하는 농민들이지만 이런 지경에 내몰리면 필사의 결전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단군이래 천변에서 몇번 모자라는 외세의 무력침공을 받았지만 필사적으로 투쟁한 결과 우리 배달민족은 지구상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정을 무시한 농축산물 수입 개방압력은 분명 경제적인 침략행위입니다. 농축산물은 국민들의 생명을 영위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별거벗고는 살수 있으며 집이 없어 다리밑에서 살수는 있어도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아무런 대안없이 외국인들에게 내어 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많은 부족과 국가가 흥망성쇠를 누렸으나 농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던 부족국가는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소멸해버린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되었습니다.

1981년 흉작으로 많은 쌀을 미국에서 수입하지 않을 수 없었을때 당시 쌀의 국제시세는 350弗이었으나 한국 도입분은 450弗에 사들이지 않을수 없었던 신병현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이 의미도입 진상규명 9인 소위원회의 답변에서도 장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크나큰 불행을 자초하고 말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무신 먹고 자동차를 먹으며 섬유류를 먹고 살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며 먹는 음식의 중요성은 이렇게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우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황폐화 되는 것보다는 기름진 옥토로 남는 것을 이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나 바랄 것이고 이농한 실업자들이 우글대며 민심이 흉흉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농촌이 황폐화 되는 것은 농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농업의 발전은 곧 기름진 옥토로 가꾸는 사업입니다.

우리모두 슬기를 모아 괴물같이 닥아오는 농축산물 수입 개방압력을 막아내고 살기 좋고 풍요로운 삼천리 금수강산 가꾸기에 총 단결하여 앞장섭시다.